

로맨틱 환상 뒤에 숨은 '오만과 편견'

노라 에프론 감독의 <유브 갓 메일>

김경욱 |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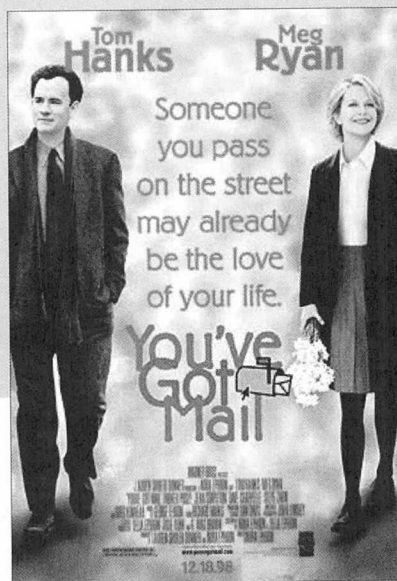
<유브 갓 메일>은 대형서점의 등장으로 폐업하게 된 작은 서점 얘기를 그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룬 책도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이같은 주제 의식은 감미로운 로맨스와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통해 교묘히 가려진다. 대형서점의 사장과 작은 서점의 주인이 연인이 된다는 로맨틱한 환상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이다.

톰 행크스와 맥 라이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아니다. <유브 갓 메일>이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선 라디오를 통해 만나게 됐던 두 사람이 노라 에프론 감독의 영화 <유브 갓 메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다. 이 두편은 이런 저런 몇 가지 차이에도 로맨틱 코미디라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해도 된다면, 나는 로맨틱 코미디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낭만적인 데이트의 정규 코스로 가끔 이용할 뿐이다.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커플들은 빛과 어둠이 조작해내는 낭만적인 장면과 예정된 해피엔딩을 통해 자신들의 행복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물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환상을 파는 산업이고 연애란 일종의 환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세련된 음악과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대사, 낭만적인 결말 등의 로맨틱한 환상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자본의 오만과 편견 때문이다.

'NY152' vs 'Shopgirl'

'여우' (Fox)라는 이름의 대규모 서점 체인망의 사장(톰 행크스)인 'NY152'. '길모퉁이 서점'이라는 컨트리 풍의 간판을 단 조그마한 아동서적 전문서점. 그러니까 동네서점의 사장인 'Shopgirl' (맥 라이언). 도저히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매일 온라인상에서 만난다. 끊임없는,



'NY152'와 'Shopgirl'은 온라인에서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지만 오프라인상에서는 생존 문제를 두고 싸워야 하는 적이다. 그러나 할리우드는 두 주인공이 연인이 되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다. 이런 점에서 영화 <유브 갓 메일>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문법에 충실한 영화다.

다소 중독적인 메일 교환을 통해 그들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성별도 확실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품게 된다.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삼가한다는 규칙만 지킨다면 그들은 늘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조 폭스 vs 캐슬린 켈리

온라인상의 평화와는 대조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는 사활을 건 싸움이 그들 사이에 벌어진다. 사실, 이것은 싸움도 무엇도 아니다. 일방적인 학

살에 지나지 않는다. 구멍가게 같은 '길모퉁이 서점' 바로 옆에 거대한 공룡 같은 대형서점 체인점이 들어선 것이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 대형서점 쇼핑물의 할인공세와 자본력의 발톱 앞에서 '길모퉁이 서점'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진다. 거대자본 앞에서 소규모 자본은 초토화돼 42년 전통의 '길모퉁이 서점'은 급기야 폐업 위기에 몰린다. 오프라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적이 된 두 사람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온라인상의 우정을 돈독히 쌓아간다.

심지어 대형서점 '여우'의 사장인 조는 자신의 발톱에 숨을 헐떡이고 있는 '길모퉁이 서점'의 사장인 캐슬린에게 상대에게 맞서 싸우라고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준다. 물론 이것은 'NY152'가 다정한 메일상대인 'Shopgirl'에게 보내는 우정 어린 조언이지만. 그러나 언론에 호소도 해보고 동네 주민들이 대형서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해보지만 '길모퉁이 서점'의 폐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책도 그것이 판매·유통되는 한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할리우드의 결론은 폐업한 캐슬린 켈리와 대형 서점의 사장인 조가 연인이 되는 것이다. 감미로운 로맨스와 은밀하게 감춰진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취해 있는 동안 자본의 오만은 은폐된다.

'NY152'와 'Shopgirl'이 현실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었다. 이는 'Shopgirl'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다. 그러나 대형서점의 사장인 조에게 섬세한 여성심리를 다룬 이 19세기 영국소설은 몇 장 넘기다 던져버리는 하나의 따분한 상품에 불과하다. 마치 대형쇼핑몰의 냉장고에 진열된 소시지처럼.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란 교환가치 지상주의다.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박스 오피스의 숫자가 작품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맨틱 코미디라는 가장 미국적인 장르야말로 전세계 연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세련되고 탐욕스러운 '여우'가 아니던가. ●